

케이(K)-푸드 '수출 복병' 위조상품 이렇게 대응하세요

- 특허청, 식품업종 맞춤형 'K-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' 가이드 최초 발간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9. 30.(월) 케이(K)-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위해 식품업종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작된 'K-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' 가이드를 처음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.

특허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분석*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유통은 '21년 기준 약 11조 원 규모이며,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.5%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업종별 맞춤형 대응 전략 가이드를 발간하기로 하고, 식품업종 기업을 위한 가이드를 처음 발간한다.

* '우리 기업의 전 세계 위조상품 유통 현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' (OECD, ' 24.6)

식품기업에 특화된 이번 가이드에는 △식품업종 분쟁 통계 및 현황 △식품기업이 겪는 위조상품 유통·상표무단선점 사례 및 대응전략 △식품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기초 정보 △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 보호 지원사업 소개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 식품기업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.

특허청은 식품, 화장품 등 위조상품 유통 빈발 5개 업종 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('23.11월)하고, 케이(K)-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예방·대응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오고 있다. 또한 농림축산식품부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식품산업협회 등과 케이(K)-푸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('24.9월)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 방위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.

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금번 식품분야 대응 전략 가이드가 업종별로 분쟁상황이 상이한 점을 적극 고려하여 최초로 발간되는 만큼, 우리 케이(K)-푸드 기업의 수출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향후 위조상품 피해 빈발 업종인 패션, 화장품 등으로 가이드 발간을 지속 확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동 가이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*(www.koipa.re.kr/home/main.do), IP-NAVI**(www.ip-navi.or.kr/ipnavi/)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.

*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> 고객지원 > 자료실

** IP-NAVI > 자료실 > 쉽게 아는 지재권 > 참고자료

※ 붙임: 'K-FOOD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' 가이드 표지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	책임자	과 장	김준경 (042-481-5182)
	산업재산분쟁대응과	담당자	사무관	장성국 (042-481-5999)

